원희룡 장관, “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”

- 김포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방문, 소음 체감 및 개선의견 수렴 -

□ **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**은 8월 31일 김포공항 인근 소음피해가 심한 서울시 양천구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**항공기 소음 피해를 점검**하고,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**지역 의견을 청취**하였다.

○ 이날 방문은 코로나-19 회복세로 국제선 운항 등 항공수요가 늘어나면서 **공항 주변지역**의 소음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**소음수준을 직접 점검**하고, **애로사항 및 개선방안**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원 장관은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“정부는 **공항 소음피해지역**에 방음시설과 에어컨 설치 등 **피해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**해왔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”이라며,

○ “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 **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**하여, 주민들의 **고통을 덜어드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**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○ 아울러, 단체장들에게도 “소음으로 고통받는 공항 주변 **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**될 수 있도록 **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**”을 당부하였다.

□ 이어서, 소음피해 현장인 양천구 지역의 아파트를 방문한 원 장관은 “항공기 **소음피해**로 인한 **지역주민들의 고통**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”면서,

○ “피해지역 **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**하여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**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**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2. 8. 31.

국토교통부 대변인